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09



Contents



※ 2025.12.18(목) 기준(대상 기간 : 2025.12.11.~2025.12.17.)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김성환 장관 "탄소중립이 곧 돈 되는 기회...재생E 단가 낮추겠다"(2025.12.11) 1
- 농진청, AI로 농업 혁신기술 보급 확대... 식량자급 제고·탄소중립 실현(2025.12.11) 1
- 경남도, 2025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시·군 평가 결과 발표(2025.12.11) 2
- 2025 삼척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 성료(2025.12.11) 2
- 인천환경공단, 생활폐기물 감량·탄소중립 캠페인 전개(2025.12.11) 3
- 장성군,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 지자체 '장려상'(2025.12.11) 3
- 부천시, 4차산업위원회 열어...친환경·탄소중립·AI 산업 발전방안 모색(2025.12.11) 4
- 포천시, 북경시청년연합회와 탄소중립 협력 기반 구축(2025.12.11) 4
- '저탄소 한우' 개발 MOU 체결한 장수군..."탄소중립 축산체계 구축 최선"(2025.12.11) · 5
- 탄소중립을 위한 '안동의 그레타 툰베리'를 찾았다(2025.12.11) 5
-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성과공유회 및 포럼 19일 개최(2025.12.11) 6
- 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조례' 제정(2025.12.11) 6
-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목포시 '찾아가는 교육' 현장 호평(2025.12.11) ... 7
- 울산탄소중립센터, 베트남 NSSC·블루윙모터스와 협약(2025.12.12) 7
- 이돈승 지회장 "탄소중립, 생존의 문제...경제성·제도적 뒷받침 필수"(2025.12.12) 7

- 안산시 탄소중립 정책 포럼 "탄소 감축은 선택 아닌 생존 조건"(2025.12.12) 8
- 서산시, 미래에너지·탄소중립 전환 컨퍼런스 개최(2025.12.13) 8
- 해남군, 농식품기후대응센터·탄소중립 에듀센터 내년 착공(2025.12.14) 9
-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탄소중립·균형성장 두 축 잇는다(2025.12.17) 9

■ AI 분야 10

- 김총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발표(2025.12.11) 10
- 교육부, AI·첨단분야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규제 대폭 완화(2025.12.11) 10
- 과기정통부, 국산 AI 칩 성능지표 'K-퍼프' 발표...12개 기업 협의체 출범(2025.12.11) · 11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AI 37개교 등 41개교 신규 선정(2025.12.11) 11
- 하정우 AI수석 "한국 AI 3강 충분히 가능...연내 실행 로드맵 공개"(2025.12.11) 12
- 경제부처 업무보고 시작...AI 성장률·금산분리 완화 등 주요 의제(2025.12.11) 12
- 윤호중 행안장관, 체코 신임총리 면담...AI정부·원전 등 협력 논의(2025.12.11) 12
- 삼성·SK "AI 시대 반도체 투자환경 개선 시급"...대통령실 보고회(2025.12.11) 13
- 광주운전면허시험장, AI 모빌리티 인증센터 갖춘 전국 최고 수준 조성(2025.12.11) 13
- 경남도, '제조AI 글로벌 허브' 5개년 마스터플랜 발표(2025.12.11) 14
- 포항철강산단, AI·드론·디지털트윈 결합 통합관제센터 본격 가동(2025.12.11) 14
-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AI 돌보미 실효성에 날선 질타(2025.12.11) 14
- 경기도, 양자·AI·반도체 융합산업 종합 추진체계 본격 가동(2025.12.11) 15
- 광주시, 광융합·AI 인프라 방위산업으로 확대...산학연 전략회의 개최(2025.12.11) 15
-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종 확정...에너지·AI 융합 거점 도약(2025.12.11) 16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6

▪ 탄소중립 분야 16

- 코레일,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두 토끼' 잡는다(2025.12.11) 16
- 산단도 탄소중립 본궤도...전환금융·ESG·효율투자로 '트리플' 가속(2025.12.11) 17
- 마사회, 공공기관 ESG대상 수상... 탄소중립 경영 인정(2025.12.11) 17

▪ AI 분야 18

- 신용보증기금, 삼정KPMG와 AI 기반 차세대 부실예측모형 개발(2025.12.11) 18
-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금융권 최초 'AI전략부' 신설(2025.12.11) 18
- 경남TP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제조AI 컨트롤타워로 부상(2025.12.11) 19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9

▪ 탄소중립 분야 19

- 정치권·산업계, 철강산업 전환점...탄소중립 시대 생존전략 모색(2025.12.11) 19
- [김경식의 이세계 ESG]탄소중립과 세 가지 희망고문(2025.12.11) 20
- [사이언스온고지신]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현황과 과제(2025.12.15) 21
- [기고]탄소중립, 속도 경쟁만이 답은 아니다(2025.12.17) 21

■ AI 분야 22

- 신한투자증권, AI 신용공여 지킴이 서비스 출시(2025.12.11) 22
- 마음AI CEO "피지컬 AI 시대, 온디바이스 기술과 데이터가 핵심"(2025.12.11) 22
- 에릭슨 "엣링크 중심 트래픽 시대...AI-RAN·5G SA 전환 중요"(2025.12.11) 22
- AI전력 수요 폭발...K가스터빈 '빅3' 틈새 노린다(2025.12.11) 23
- 아이엘, 엑스와의와 피지컬AI 기반 디지털전환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2025.12.11) ... 23
- 신한투자증권 "현대차, AI·로봇 결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목표가 38만원"(2025.12.11) · 24
- TS트릴리온, 청담글로벌과 미국 시장 진출 협력...AI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2025.12.11) 24
- SPC그룹, 충북 음성에 AI·로봇 스마트 공장 조성...3000억원 투자(2025.12.11) 24
- 가비아, '인공지능혁신대상' 수상 기념 AI채팅 첫해 50% 할인(2025.12.11) 25
- 포스코이앤씨, AI로 레미콘 압축강도 사전 예측 기술 상용화(2025.12.11) 25
- 비토즈, 홍콩 사외이사협회 컨퍼런스에서 'Web3·AI 거버넌스' 해법 제시(2025.12.11) 26
- 부산대학교, '2025 한국의 경영대상' AI 혁신 부문 대상 수상(2025.12.11) 26
- 메타, 개방형 AI 전략 수정...폐쇄형 모델 '아보카도' 개발 착수(2025.12.11) 26
- 오픈AI, 최고매출책임자(CRO) 첫 임명...수익화 본격 전환(2025.12.11) 27
- 벤츠, AI 비서 탑재한 신형 GLB 공개...대화하며 주행(2025.12.11) 27
- 파월 연준 의장 "성장률 상향, 소비 회복력·AI투자 반영"(2025.12.11) 27
- BNP파리바 "AI 버블 아니다...닷컴 때와 다른 구조"(2025.12.11) 28
- 오픈AI "안드로이드서 챗GPT 오류 발생 중"(2025.12.11) 28
- 미국 검찰총장 42명, 빅테크에 "AI가 망상 조장" 경고 서한 발송(2025.12.11) 28
- AI 에이전트 시대...'매출 1000억' 1인기업 나올 것(2025.12.11) 29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div><div>□ 김성환 장관 "탄소중립이 곧 돈 되는 기회...재생E 단가 낮추겠다"(2025.12.11)</div><div><div>-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대한상의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탄소중립이 경제적 기회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청사진 제시. 2035년까지 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수입 비용(2024년 기준 238조 원)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시스템 전환 추진 계획 발표.</div><div>- 태양광 발전 단가를 2040년까지 80원/kWh, 육상풍력 150원/kWh, 해상풍력 250원/kWh 수준으로 인하해 전기료 상승 우려 해소 방침 천명. 제조업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태양광, 해상풍력, 배터리 ESS, 고압직류송전(HVDC) 등 녹색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발주와 투자 확대 예고.</div><div>- 제주도에서 '탈탄소 녹색문명 실험'을 시작해 2035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문명의 섬' 조성 후 전국 확산 계획 발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일본 GX 정책처럼 성장·탈탄소·에너지 안보를 통합하는 기술 중심 방법론의 필요성 제언.</div></div></div>
	<div><div>□ 농진청, AI로 농업 혁신기술 보급 확대... 식량자급 제고·탄소중립 실현(2025.12.11)</div><div><div>- 농촌진흥청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업 R&D 분야에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식량자급률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2026년 사업 추진 계획 발표. 기존 '농업 AI 에이전트'에 병해충·기상재해 정보를 통합하고 농가 경영진단 솔루션 제공 예정.</div><div>- 내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4호 '농림위성'을 활용해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 및 출하량 예측 정보 수집 계획. 온실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 확대 보급과 딸기·토마토 등 중소 규모 저비용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현장 실증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구축 추진.</div></div></div>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초 개발 저메탄 벼 '감탄' 재배 기술 현장 확산과 질소비료 사용량 절감 '깊이거름주기' 기술 실용화 계획. 반추가축 메탄 저감 사료 소재 '티아민 이인산' 산업화 등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과 청년농업인 육성, K-농업기술 글로벌화를 위한 ODA사업 다각화 추진 방침.
지자체	<p>□ 경남도, 2025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시·군 평가 결과 발표(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가 도내 18개 시·군 대상 '2025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평가' 결과 발표. 시부 1위 창원시, 2위 거제시, 3위 김해시, 군부 1위 의령군, 2위 창녕군 선정.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 등 4개 분야 9개 항목 종합 평가. - 창원시는 전국 최초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제' 도입, 중소기업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 개선사업, 탄소중립 토크콘서트 개최 등 도민 참여 확대로 높은 평가 획득. 의령군은 탄소중립포인트 가입률 30%로 도내 1위 기록, 도내 평균(20%)보다 10%p 높은 수치 달성. - 거제시는 도내 기업 및 유관기관 협업 탄소중립 캠페인, 김해시는 '찾아가는 마을 기후학교'가 우수사례로 인정. 민간 부문 실천 확산 노력 민간인 8명 발굴 포상 예정. 배효길 기후대기과장은 우수사례 확산과 도민 참여 확대 시책 지속 발굴 추진 의지 표명. <p>□ 2025 삼척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 성료(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시와 강원대학교 주최,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강원대 삼척권역 지학협력센터 주관 '2025 삼척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가 12월 9~10일 쏠비치 삼척에서 개최. '지식 공유, 성과 확산, 지학협력' 기반 강화 목적으로 관·산·학·연 전문가와 시민 200여 명 참석.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현황, 광역·기초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과 미래에너지, 광물자원 활용과 이산화탄소 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집·활용 신산업 생태계 등 총 4개 트랙 8개 세션 구성으로 전문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권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례발표와 네트워킹, 삼척시 탄소중립 챔피언스 시상식, 시민교육 전문강사 소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은 지역 기후행동 기반 마련과 지역-대학 공동 혁신모델 확산, 관·산·학·연 협력 지속 확대 계획 발표.
	<p>□ 인천환경공단, 생활폐기물 감량·탄소중립 캠페인 전개(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환경공단이 연수구 송도자원순환지원센터 실내 스포츠시설에서 방문객 대상 '생활폐기물 감량·탄소중립 캠페인' 실시. 내년 시행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선제 대응과 폐기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른 시민 탄소중립 실천 동참 홍보 목적. - 방문객들에게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탄소중립 행동 전환' 안내 홍보물과 폐기물 감량 체험용 친환경 기념품 제공. 폐기물 발생에서 일회용품 소비, 폐기물 자원화로 이어지는 전 과정 홍보를 위한 4단계 체계적 안내 계획. - 소비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 줄이기, 대체용품 사용 폐기물 배출 최소화, 분리배출 자원화 확대, 탄소중립 이행 행동 전환 등 홍보 추진. 김성훈 이사장은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 지속 실시와 인천시·지역사회 협력 자원순환도시 실현 노력 의지 표명.
	<p>□ 장성군,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 지자체 '장려상'(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장성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시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 탄소중립 실천 정책 모범사례로 인정.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208개 기초지자체 대상 제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 참여자 수 증가율,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제도 활성화 노력 등 종합 분석. 저탄소·저예산형 홍보 추진, 주민 눈높이 맞춤 온·오프라인 홍보, 읍면 직접 방문 이동식 홍보 캠페인 등 실질적 참여 유도 활동 호평 획득. -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상업시설 절감 에너지 사용량만큼 인센티브 제공 제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 통해 가입 가능. 김한중 군수는 탄소중립 실천이 미래 세대 책임이자 의무임을 강조하며 주민과 함께 탄소중립 선도 도시 추진 의지 표명.</p>
	<p>□ 부천시, 4차산업위원회 열어...친환경·탄소중립·AI 산업 발전방안 모색(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가 시청 창의실에서 '4차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규제 대응, 탄소중립 기반 구축, AI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주요 안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부천 제조기업 친환경 규제 대응 및 기술 자문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안건. - 참석 전문가들은 수출 규제 대비 대응체계 마련, 탄소중립 전략 추진, AI 융합 산업 기반 조성의 필요성 강조. 부천시탄소중립지원센터 조성사업 제안과 부천 AI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논의. - 시는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제조업 친환경 전환 지원, 탄소·에너지 정책 체계화, AI 융합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전략 구체화 계획. 남동경 부시장은 기술 변화와 환경 규제 심화 상황에서 체계적 대응이 지역 산업 지속 성장 핵심 과제임을 강조.
	<p>□ 포천시, 북경시청년연합회와 탄소중립 협력 기반 구축(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천시가 북경시청년연합회 대표단과 탄소중립 협력 논의 교류 행사 개최, 기후 정책과 생태 복원 사례 공유. 포천시상공회의소에서 북경시 공청단 간부 6명 포함 중국 대표단과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환경일보, 한국그린자원(주) 등 국내 기후 전문가 참석. - 최광석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포천시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질 공원 보유, 첨단 과학기술 기반 '기후탄력적 발전' 모델 실현 현황 소개. 심철규 전문관은 드론과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생태 복원 및 산림 관리 사례 발표로 과학기반 탄소중립 정책 실현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영현 시장은 드론·디지털트윈 등 미래 기술 활용 기후위기 대응 정책 구현과 탄소상쇄숲 조성, 생태 모니터링, 청년 교류 등 협력 프로그램 추진 계획 발표. 중국 대표단은 포천시 디지털 기반 생태 복원 모델에 깊은 인상, 향후 협력 의지 표명.
	<p>□ '저탄소 한우' 개발 MOU 체결한 장수군..."탄소중립 축산체계 구축 최선"(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장수한우지방공사, 이티바이오텍(주), 전북대 등과 '장수형 저탄소 종모우 개발' 공동연구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장수 지역 사양환경 적합 우수 유전자원 확보와 탄소배출 저감, 생산성·품질 향상 종모우 개발 목적. - 장수군은 사업 총괄 및 행·재정적 지원,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채정·가공·사양관리와 농가 컨설팅, 이티바이오텍은 유전체 기반 연구개발, 전북대는 유전 능력 평가와 우량 암소·후보 종모우 선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내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2030년까지 단계적 추진 계획. - 개발 종모우 정액은 지역 한우농가 우선 공급 후 동부권 인근 지자체까지 보급 확대 방침. 우량 암소축군 조성, 종모우 자립 기반 확립, 장수한우 브랜드 가치 상승, 저탄소 축산 이미지 구축 등 경제·환경·브랜드 분야 다양한 성과 기대.
	<p>□ 탄소중립을 위한 '안동의 그레타 툰베리'를 찾았다(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북주초등학교에서 '안동의 그레타 툰베리' 찾는 어린이 탄소중립 실천대회 시상 행사 개최. 어린이들이 환경보호 실천 내용을 일기, 사진 등으로 기록 제출하는 대회로 2018년 환경 실천 운동 펼친 스웨덴 환경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 이름에서 유래. - 안동시 강남초, 북주초, 안동초 학생 130여 명 참여. 대상(안동시장상) 이은채(북주초 4학년),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장려상 30명 등 39명 수상. 대상 수상자는 환경 일기에 그레타 툰베리 본받아 키보드 통학, 선풍기 코드 뽑기, 10분 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샤워 등 실천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에서 식전 마술 공연, 기후특강, 반려식물 나눔, 환경보물찾기, 탄소중립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기후 퀴즈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협의회는 매년 대회 추진과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 대상 탄소중립 생활환경 실천대회 확대 계획 발표.
	<p>□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성과공유회 및 포럼 19일 개최(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19일 오후 2시 강원대 공과대학 사이버랩에서 성과공유회 및 포럼 개최 예정. 김지숙 춘천시의원, 이강익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문상석 강원대 교수, 김동진 한림대 교수, 김월중 활동가 등 참여. -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 목적. 2025년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 성과 보고 후 빅데이터 AI 기반 MACC모델·탄소중립 교육현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예정. - 2025년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지명토론과 종합토론 진행. 춘천시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기대.
	<p>□ 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조례' 제정(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상임위원회 통과.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 경북이 선도적 조례 제정으로 대한민국 한우산업 전환 전략 출발점 기대. - 조례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한우농가 경영안정 대책과 조사료·사료비 부담 완화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및 소규모 농가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저탄소 사양기술·유통·가공·브랜드 관련 전문 교육 근거 마련 등 포함. - 한우 유전자원 보호, 칫소·흑우 등 지역 고유 품종 보전, 한우문화 확산 등 지역 특화 전략 포함. 최병준 의원은 농가 경영 안정과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전환점 마련 강조, 조례안은 12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목포시 '찾아가는 교육' 현장 호평(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곳 직접 방문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교육' 진행, 큰 호응 속 마무리. 아동·청소년 눈높이 맞춤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 원인과 영향, 탄소중립 필요성, 실생활 실천 방법 단계적 학습. - '탄소중립 생활실천 활동가 양성과정' 수료 시민 활동가들이 강사로 참여, 아동 공감 사례와 실생활 중심 체험 활동 진행으로 높은 만족도 달성. 기후위기·탄소중립 이해,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 에너지 전환 시대 흐름 파악 등 주요 교육 내용 구성. - 모든 참여 아동이 '1일 1kg 이산화탄소 줄이기 서약서' 작성, 분리배출·에너지 절약·대중교통 이용 등 실천 과제 선택 서약.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어린이 작은 실천의 지역사회 기후 행동 확산 의미 강조, 다양한 기관 협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계획 발표.
	<p>□ 울산탄소중립센터, 베트남 NSSC·블루윙모터스와 협약(2025.12.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베트남 국가창업지원센터(NSSC), (주)블루윙모터스와 이륜차 전동화를 통한 탄소 감축 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동남아시아 지역 친환경 교통 생태계 조성 추진 예정. - 이륜차 전동화 사업은 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 감축 전략. 울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국제 협력 사업 확대와 지역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기대. - 베트남 NSSC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연계 및 전동 이륜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블루윙모터스의 전동 이륜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과 탄소 감축 성과 창출 추진.
	<p>□ 이돈승 지회장 "탄소중립, 생존의 문제...경제성·제도적 뒷받침 필수"(2025.12.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 지회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바이오수소 생태계 구축 및 탄소중립 녹색실천 토론회'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며 경제성과 제도적 실행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과 함께 경축순환농업 확대, 축산분뇨 자원화, 공동자원화 시설 구축 등이 농촌 탄소중립 핵심 과제임을 제시. '햇빛 소득 마을'처럼 녹색 실천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 필요성 강조. - 민주당 전북도당 제안 '그린수소 수도 전북' 구상의 유효성 평가와 함께 2040년 100% 탈탄소 목표 달성 속도 필요성 언급. 에너지 식민지 전략 방지를 위한 '지산지소' 원칙과 주민 갈등 해결 전략적 접근 필요성 강조.
	<p>□ 안산시 탄소중립 정책 포럼 "탄소 감축은 선택 아닌 생존 조건"(2025.12.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와 안산환경재단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탄소중립 정책 포럼 개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산업·수송 구조적 전환과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구축 필요성 제시.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저탄소 고효율 스마트 산업 생태계 전환 제안. - 이민근 시장은 기후 위기가 인류 공동 과제임을 강조, 에너지 전환·산업구조 혁신·생태환경 회복·시민 참여 확대를 핵심 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실현 의지 표명. 엄지용 카이스트 교수는 안산의 첨단산업도시 변모 필요성 강조. - 정형철 수원대 교수는 노후 산단 그린 리모델링 지원,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 (FEMS) 도입, 안산사이언스밸리 첨단 산업단지 조성, 그린·블루 카본 흡수원 활용 제안. 장성진 (주)티엘비 이사는 탄소 감축이 생존 조건임을 강조, 지방정부 지원과 산단 특화 에너지 정책 필요성 역설.
	<p>□ 서산시, 미래에너지·탄소중립 전환 컨퍼런스 개최(2025.12.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시가 베니키아호텔 서산에서 충남산학융합원 주관 '미래에너지·탄소중립 전환 컨퍼런스' 개최. 이완섭 시장, 조동식 시의회 의장, 합기선 한서대 총장 등 관련 기관·단체·기업·학계 관계자 참석으로 민·관·산·학 협력의 장 마련. - AI 기반 온실가스 관리기술,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충남 산업 구조 맞춤 탄소중립 대응 전략 등 미래 도시와 산업 핵심 과제 중심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산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현장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정책 방향 제시로 높은 관심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완섭 시장은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생존 과제임을 강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 추진 의지 표명. 시는 컨퍼런스를 계기로 탄소중립 정책과 미래에너지 전략 구체화, 지역 산업 연계 실천 중심 전환 정책 지속 추진 계획.
	<p>□ 해남군, 농식품기후대응센터·탄소중립 에듀센터 내년 착공(2025.12.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군에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핵심 거점 시설 본격 조성. 2026년도 정부에 산안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50억원, 탄소중립에듀센터 건립 60억원 반영으로 내년 착공 예정. 농식품부 직접사업인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사업비 594억원 투입, 삼산면 평활리 3ha 부지에 2028년 운영 목표. - 기후변화대응센터는 2021년 공모 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진행.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 기후 데이터 관리·연구, 탄소감축·적용 정책지원, 농업인·소비자 교육·홍보 등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핵심 거점 운영 예정. -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조성, 총사업비 389억원 규모 국비·지방비·민자 투입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한국환경공단 설계, 한국환경보전원 운영 담당. 국민 실천문화 확산과 미래세대 환경교육 강화 국가 환경교육 거점으로 운영 계획.
	<p>□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탄소중립·균형성장 두 축 잇는다(2025.12.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 기반과 산업 인프라를 앞세워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국제 탄소 규제 강화로 수출 중심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이 필수 과제로 부상, 기업 유치 기반시설 마련 추진. - 새만금에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중. 2029년 수상태양광 1.2GW RE100 기업 본격 공급 목표 산업단지 조성 추진. 1.5GW 규모 전력 공급 능력 확보와 광역 전력망 연계 용이로 AI 데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터센터 등 첨단기업 유치 유리한 입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산단 5·6공구 2022년 전국 최초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RE100 구현 기반 마련.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7GW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인프라 갖춘 대한민국 유일의 RE100 최적지임을 강조, 글로벌 기업이 찾는 재생에너지 허브 도약 의지 표명.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金총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발표(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병환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발표함. 이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허위정보 확산과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조치. - 표시 의무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정보의 출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딥페이크 등 AI 악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AI를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을 부과하여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임. 정부의 AI 규제 정책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평가.
	<p>☐ 교육부, AI·첨단분야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규제 대폭 완화(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가 첨단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집행규제를 집중 발굴해 정비함.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과 AI 핵심 기반 시설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현장 애로사항 해소 목적. - 규제 해소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 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 등 5개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업방식의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 규제 합리화 특별팀(TF)을 활용해 개선 방안 마련 예정. 충청권 대 학도 AI·첨단분야 사업 신속 운영 기대.
	<p>□ 과기정통부, 국산 AI 칩 성능지표 'K-퍼프' 발표...12개 기업 협의체 출범(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동성능 지표 'K-퍼프(perf)'를 발표함. 한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연산 능력을 입증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반도체 대신 국산 선택 유도. - K-퍼프는 수요 기업이 제시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측정 모델 및 조건·지표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임. 추후 온디바이스 AI까지 측정 범위를 넓히고 내년 1분기 안으로 인증 절차도 도입 계획. - 퓨리오사AI, 리벨리온, 하이퍼엑셀 등 공급처와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등 수요처 포함 12개사가 참여하는 'K-퍼프 협의체' 출범. 정부는 내년 AI 분야에만 10조원 투자 계획.
	<p>□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AI 37개교 등 41개교 신규 선정(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계획 발표함. AI 37개교, 미래차 2개교, 로봇 2개교 등 41개교 신규 선정해 총 8개 분야 88개교 지원 예정. - 선정된 대학은 교당 연간 평균 14억25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향후 5년간 학교당 연간 100명 이상의 첨단 인재 양성함. 사업기간은 5년(3+2년)으로 설정. - AI 산업·교육 여건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극복을 위해 지역 중심으로 AI 분야 부트캠프 37개교 신규 선정함.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실현 목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하정우 AI수석 "한국 AI 3강 충분히 가능...연내 실행 로드맵 공개"(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와 관련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힘. 미국 1위, 중국 2위 구도에서 3~10위권 국가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경쟁 상황 진단. -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한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싱가포르(3위), 영국(4위)에 이은 5위로 평가받음. 한국은 인텐시티(역량의 밀도)와 스케일(규모) 밸런스가 고르게 좋다는 점이 강점. - 연내 공개될 실행 로드맵은 새로운 조직 신설보다 법·제도 정비와 사업,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등 구체적 실행 항목 중심으로 구성 예정. 정부 전략과 기업 투자, 인재 양성이 맞물려야 3위 도약 가능.
	<p>□ 경제부처 업무보고 시작...AI 성장률·금산분리 완화 등 주요 의제(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업무보고가 11일부터 시작됨. 기재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 금산분리 완화, 코스피 5000, 외환시장 안정 방안 등 보고 예정. -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를 올리고,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힘.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과제 제시 전망. - AI 등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기재부는 내년부터 예산기획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어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
	<p>□ 윤호중 행안장관, 체코 신임총리 면담...AI정부·원전 등 협력 논의(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행안부 공공행정협력단이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AI 민주정부 비전을 공유하고 원전 협력 논의함. 체코 내무부의 요청으로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협력 추진. -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신임 총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 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과에 많은 관심이 있다“며 한국의 AI 대전환,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연계·활용 등 공공분야 혁신에 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은 사이버 안보, AI 대전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함.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위한 교통 인프라 지원과 건설 인력 비자 발급 소요일 단축 등 협조 당부.
	<p>□ 삼성·SK "AI 시대 반도체 투자환경 개선 시급"...대통령실 보고회(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콰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투자환경 개선을 촉구함. AI 수요 폭발로 개별기업이 투자를 감당하기에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호소. - 전 부회장은 “AI반도체 성공의 핵심은 연결과 협업“이라며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AI 시대가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함. - 콰 사장은 “선제적 생산능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 역설함.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600조원 단계적 투입 계획.
지자체	<p>□ 광주운전면허시험장, AI 모빌리티 인증센터 갖춘 전국 최고 수준 조성(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북구 삼각동에 들어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총사업비 452억원으로 증액되며 1급지 규모와 기능 유지 결정됨. 공사비 상승분 79억원과 'AI 모빌리티 인증센터' 설계비 3억원이 정부예산에 포함. - 연면적 4만210㎡ 규모로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전액 국비로 추진됨. VR 기반 평가 시스템과 IT 기반 운전면허 평가 체계가 적용된 AI 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센터 함께 구축. - 가상현실(VR) 주행 평가 공간과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3만 평 규모의 자율주행시험장(PG) 조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경남도, '제조AI 글로벌 허브' 5개년 마스터플랜 발표(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가 인공지능(AI)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인재양성-강소기업 육성이라는 3대 전략 제시함. '인공지능 혁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허브 구축' 비전 아래 '경남의 4G' 슬로건 설정. - '경남제조AI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5년간 5배 이상 향상시켜 현재 2000여개에서 1만개 이상 제조기업의 AI 전환 지원 계획. AI 인재 600명 양성, AI 솔루션 기업 100개사 강소기업 육성 목표. -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과 AI 기반 혁신공장 4000개 이상 구축, 도내 제조산업의 AI 전환 비율 30%까지 상향 계획. 올해 AI 관련 12개 국비 사업 유치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301억원 확보.
	<p>□ 포항철강산단, AI·드론·디지털트윈 결합 통합관제센터 본격 가동(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가 포항철강산업단지에 AI 예측 기술과 디지털트윈, 무인자율비행 드론 관제를 결합한 '디지털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 본격 운영 돌입함.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적 위험요인 실시간 분석·예측 실현.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 선정 이후 추진된 핵심 사업으로 총 130억원(국비 85억, 지방비 45억) 투입됨. 안전·환경·교통·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산단 전용 플랫폼. - 화재·유해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한 실시간 대응 시나리오 공개됨. 환경감시 CCTV 6대와 무인자율드론 2대로 현장 즉시 파악, 유해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영향 예측.
	<p>□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AI 돌보미 실효성에 날선 질타(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AI 돌보미 사업의 실효성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상함. 김지만 의원은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AI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지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의원은 “AI 돌보미 사업 예산은 없애고,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전문케어를 투입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함. AI 기반 서비스의 한계와 인간 중심 돌봄의 필요성 강조. - 손한국 의원은 푸드뱅크 사업에서 군위군이 제외된 형평성 문제 지적함. 청년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 방안과 대구 청년정착 기여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짐.
	<p>□ 경기도, 양자·AI·반도체 융합산업 종합 추진체계 본격 가동(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가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2026년을 기점으로 양자·인공지능(AI)·반도체 융합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 본격 가동함. 기술 격차 줄이고 글로벌 주도권 선점 구상. - 제도적 기반은 2025년 5월 시행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임.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 근거 마련. 7월에는 지원센터 설치 조항 포함 개정 조례 통과. - 2025년 100억원 규모 연구개발용 양자팹 완공, 2026년 300억원 규모 파일럿 팹 추가 구축 예정. 한국나노기술원에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 조성해 산학연 협력 촉진.
	<p>□ 광주시, 광융합·AI 인프라 방위산업으로 확대...산학연 전략회의 개최(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가 방위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함. 광주테크노파크, GIST, ETRI, 한국광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 40여 명 참여. -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광융합 산업과 AI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반도체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 군 수요 기반 과제 발굴 방안 논의. - 시는 2013년 광주국방벤처센터 유치 이후 지역기업의 방위 기술 개발과 방위시장 진입 지속 지원 중임. ‘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추진, 11월 25일부터 입법예고.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종 확정...에너지·AI 융합 거점 도약(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 2000억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 나주에 들어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신규 구축 대상지로 나주시 최종 확정됨.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략에 본격적 탄력. - 한국에너지공단(켄텍), 한전 등 나주혁신도시 내 에너지 인프라와 700여 관련 기업 집적도가 경쟁력으로 작용함. 국내외 연구자 2000여명 유입, 200개 이상 글로벌 기업 투자, 1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 - AI 산업의 안정적 전력 수요를 충족할 대규모 에너지 기반 확보로 나주가 '에너지-AI 융합도시'로 성장할 발판 마련됨. 글로벌 빅테크 기업 투자에도 긍정적 신호 전망.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코레일,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두 토끼' 잡는다(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이 KTX와 전동차 등 철도차량에 친환경·고효율 신기술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 추진. '철도차량 전기에너지 절감 종합대책' 발표, 2034년까지 연간 전력사용량 300GWh 절감 목표. 국내 공기업 중 최다 전기에너지 소비 기업으로서 RE100 정책 적극 이행 의지. - 종합대책은 전동차 추진·제동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운전체계 구축, 차세대 차량 에너지 절감 기술 반영 등 세 가지 축 중심 추진. 영구자석 전동기 대체, 회생전력 재사용 기술 확대, 운전자 보조 시스템(DAS) 도입으로 맞춤형 에너지소비 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고속열차에 DAS·영구자석 전동기 기본 장착, KTX-청룡보다 공기저항 감소 설계 적용으로 기존 KTX-1 대비 17% 에너지 절감 기대. 300GWh 절감 시 연간 13만여 톤 탄소배출 감축, 전기요금 730억원 이상 절감 효과 예상.
	<p>□ 산단도 탄소중립 본궤도...전환금융·ESG·효율투자로 '트리플' 가속(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전환이 본궤도 진입.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환금융·ESG 확산·에너지 효율투자를 한 축으로 묶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로 산단 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 2035년 NDC 달성에 탄력 전망. - 기후대응기금 재원 전환금융은 1%대 금리(2025년 1.43%), 최장 10년 상환 구조로 장기 투자 부담 완화.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열손실 최소화, 피크 전력관리, 수요반응(DR) 참여 등 운영 개선까지 포괄. 2022~2024년 70건 선정, 2조3000억원 민간투자 유발, 1182명 고용 창출. - ESG 경영 확산으로 334개 기업 평균 27.8%p 준수율 향상, 해외수주 4333억원·내외국 매출 2233억원 증가 성과. 그린트랙(GreenTrack) 시스템 도입과 전기에너지 절감 경진대회 개최로 효율 중심 구조 전환. '2025 한국에너지대상' 국무총리 표창 등 성과 인정.
	<p>□ 마사회, 공공기관 ESG대상 수상... 탄소중립 경영 인정(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마사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ESG대상 수상. 한국ESG학회 주관 시상으로 ESG 경영 선도 국내 기업·기관 우수 사례 발굴 및 ESG 가치 확산 기여 목적. - 한국마사회는 업의 특성 반영 탄소 저감 활동 추진. 태양광 설비 확충 등 재생에너지 도입 포함 '2030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단계적 이행. 마분퇴비 활용, 폐편자 업사이클링, 국민 참여형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 꾸준히 확대. - 2021년 ESG 경영 공식 선언 후 ESG소위원회 중심 추진 계획·성과 체계적 점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해 ESG 실행 현황 투명 공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은 ESG 경영 실천 노력의 외부 인정 성과임을 강조, 국민 신뢰 받는 공공기관 자리매김 의지 표명.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신용보증기금, 삼정KPMG와 AI 기반 차세대 부실예측모형 개발(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이 삼정KPMG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부실예측모형 개발함. 거시경제 흐름과 기업 경영상황을 종합 분석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측정하는 AI 기반 실시간 자동 진단 체계. - 기존 단일 모형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규모·업력 등 기업 특성별로 모형을 세분화해 예측 정밀도 향상함. 한국은행·통계청의 Open API를 활용해 주요 경제지표 자동 수집, 머신러닝·딥러닝으로 예측 오차 최소화. - 사용자가 예측 결과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XAI(설명가능 AI)도 도입됨.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개발·학습·검증까지 AI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표준 운영 체계 구축.
	<p>□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금융권 최초 'AI전략부' 신설(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AI전략부'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본격 추진함. 인공지능 전환(AX), 생산적 금융 경쟁력 강화, AI 생태계 조성 3대 목표 체계적 추진. - AI전략부는 새마을금고 AI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함. AI 인프라와 플랫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구축, AI 기반 서류 문자인식(AI-OCR),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코딩 지원), 업무 지식 질의응답 챗봇 등 핵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술을 회원과 지역사회에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 방침임. 지역 맞춤형 금융서비스 고도화,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AI 적극 활용 계획.
지방기관	<p>□ 경남TP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제조AI 컨트롤타워로 부상(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테크노파크(TP)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가 AI 대전환 흐름 속에서 경남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 부상함. '경남형 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의 중심에서 디지털 산업 육성과 제조업 AI 융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카이스트, 경남대 등 15개 기관과 대규모 컨소시엄 구축함. 2026년까지 총 227억원 투입 예정. -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주관기관도 담당하여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140억원 등 총 222억원을 창원국가산단에 투입함. 궁극적 목표는 AI와 자동화가 담당하는 '자율 제조' 실현.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정치권·산업계, 철강산업 전환점...탄소중립 시대 생존전략 모색(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중립 압력, 보호무역 강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생존 전략적 전환 모색.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실과 순천대가 광양만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철강산업 현황과 미래 전략 논의 정책토론회 개최. 단기적 전기로 기반 신소재 개발, 장기적 수소 기반 제철 기술 및 고부가 제품 생산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와 협력한 '수소환원제철 실증센터' 광양 유치 필요성 언급. 홍문희 포스텍 교수는 전기차 시대 맞춰 배터리 소재로 산업 생태계 확장, ESS 및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철강' 육성 필요성 강조. 손일 연세대 교수는 수소 기반 제철 기술 현실적 제약 지적, 4R 기반 기술과 대체 환원제 활용 단계적 탄소 감축 전략 주장. - 같은 날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의원 주최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개최. K-스틸법 통과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 국가전략기술 지정·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완화 등 후속 입법 추진 의지 표명.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p>□ [김경식의 이세계 ESG]탄소중립과 세 가지 희망고문(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2035년 NDC(2018년 대비 53~61% 감축)를 확정했으나 핵심 감축 수단인 CCUS, SMR, 수소환원제철(HRD)의 상용화 가능성이 낮아 희망고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 2030년 NDC 40% 감축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높은 목표 설정. - CCUS는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 60150달러/톤, 이송·저장 비용 70140달러로 경제성 부족. SMR은 규모의 경제 달성 요원, 운영 인건비 비중이 치명적 문제. HRI는 그린수소 확보 어려움과 원가 50% 이상 상승으로 경제성 확보 불가능, 전 세계적으로 파일럿 단계. - 시간이 지나 기술 발전하면 경제성 확보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다른 방면 대응 소홀로 이어지는 문제 지적.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이 역설적으로 CCUS 최대의 적이 되는 상황. 지혜를 모아 현실적 감축 수단 마련 필요성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 [사이언스온고지신]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현황과 과제(2025.12.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에너지가 에너지 전환기의 한계를 보완할 현실적 해법으로 주목. 바이오매스는 성장 과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연료 활용 후 배출되는 탄소 순환 구조로 IPCC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당장 배출 감축 가능한 수단으로 평가. - 수송 부문에서 바이오에너지 역할 분명. 대형 트럭·선박·항공 등 장거리 운송 수단은 높은 에너지 밀도 필요로 단기간 전기화 어려움. 바이오연료는 기존 내연기관과 연료 공급망 활용 가능해 전환 비용과 시간 절감. 세계 바이오에너지 소비 2050년 107EJ로 증가 전망.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00년부터 바이오디젤 R&D 시작, 현재 바이오항공유 국산화 기술 확보 추진. 원료 전처리, 수첨 바이오디젤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전환 촉매 공정 개발 진행.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바이오에너지 활용은 선택이 아닌 실행의 문제. <p>□ [기고]탄소중립, 속도 경쟁만이 답은 아니다(2025.12.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성과 발표가 지역 여건 대비 과도하거나 기반 미비로 실질 이행 요원하다는 평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밀집 지역에서는 급진적 정책이 산업 현장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 초래 우려. 선의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의제로서 균형 잡힌 전략 필요. - 유럽의 녹색 전환에서 에너지 가격·공급 안정성 논쟁이 산업 경쟁력 문제로 직결된 사례 언급. 전력망 보강·백업 전원·인허가 체계 미비로 전기요금 상승과 공급 불안 동시 발생. 전환 방향 공감대는 넓으나 속도·수단 설계 미흡 시 높은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위험성 경고. - 일본처럼 원자력 재가동과 암모니아·수소 혼소, CCUS 실증 병행하는 다층적 전략 필요성 제시. 에너지 믹스 다변화, 전력망·계통 투자, 저탄소 공정 전환 R&D·실증, 전환 비용 완충 장치가 함께 움직여야 함을 강조. 목표 크기 경쟁보다 전략 완성도 경쟁 필요.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신한투자증권, AI 신용공여 지킴이 서비스 출시(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투자증권이 신용공여 종목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노하우를 인공지능(AI) 모델로 학습시켜 구현한 'AI 신용공여 지킴이' 서비스를 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출시함. - AI 신용공여 지킴이 서비스는 기간수익률, 변동성, 섹터, 시가총액 등 실제 신용공여 관리 과정에서 활용해 온 핵심 위험 판단 기준들을 AI가 학습하도록 설계됨. 일간 단위로 위험 분석 및 추적 가능. - 기존에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제공되던 위험 정보를 일간 최신 데이터로 반영할 수 있게 됨. '신용공여 등급 변경 알람' 기능으로 앱 푸시 알림을 통해 즉시 안내 제공.
	<p>☐ 마음AI CEO "피지컬 AI 시대, 온디바이스 기술과 데이터가 핵심"(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홍섭 마음AI CEO가 '2025 인공지능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에서 피지컬 AI가 인류 최초의 경(京) 단위 시장을 열 것이라고 전망함. 일론 머스크가 204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100억대 보급 공언 언급. - 피지컬 AI 시대 핵심 기술로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 제시함. 시각·언어·행동 능력을 동시에 갖춰 상황 관찰, 상식 기반 추론, 행동 수행까지 가능한 LLM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구조. - 상용화 단계에서 가장 큰 과제로 '온디바이스 기술'과 '데이터 수집' 지목함. 휴머노이드·로봇·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디바이스 기반 AI는 클라우드 의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강조.
	<p>☐ 에릭슨 "엣링크 중심 트래픽 시대...AI-RAN·5G SA 전환 중요"(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이 AI 시대의 트래픽 변화와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을 제시하며 AI 기반 무선접속망(AI-RAN)과 5G 단독모드(SA) 전환의 중요성 강조함. - 생성형 AI와 실시간 미디어 소비 확대로 엣링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네트워크 설계와 품질 관리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 2025년 3분기 기준 글로벌 모바일 네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워크 데이터 트래픽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88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AN은 트래픽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예측해 자원을 자동 최적화하며 정밀한 QoS(서비스 품질) 제어 가능하게 함. 2031년에는 5G SA 가입 건수가 약 41억 건에 도달, 전체 5G 가입의 약 65% 차지 전망.
	<p>□ AI전력 수요 폭발...K가스터빈 '빅3' 틈새 노린다(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가 촉발한 전력난으로 대형 가스터빈 시장이 수십 년 만의 최대 호황에 진입함. 올해 1~9월 전 세계 가스터빈 주문량은 66.1GW로 전년 대비 54% 폭증, 미국발 주문 용량은 3배 이상 급증. - AI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24시간 무중단 전력'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가스터빈(LNG 발전) 부상함. 날씨에 따라 변동하는 태양광·풍력의 한계 보완. -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납기 1년'이라는 파격 조건을 앞세워 북미 시장 진출에 성공함. 지난 10월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MW급 대형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 체결, 국산 가스터빈 최초 미국 수출 기록.
	<p>□ 아이엘, 엑스와이지와 피지컬AI 기반 디지털전환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엘이 AI·설계·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보유한 엑스와이지와 스마트제조 및 로봇 자동화 분야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함. 제조·모빌리티 포트폴리오에 AI·DX 기술 결합. - 세미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엘봇 C2' 모델에 엑스와이지 차세대 지능 플랫폼 '브레인엑스(BrainX)' 적용해 실증 진행 예정임. 제조 현장에서의 실제 조작 데이터 기반 실용적 사용 시나리오 도출 계획. - 브레인엑스 적용 타당성 검증 후 아이엘봇 전 라인업으로 확대 적용 계획임. 정밀 작업 데이터를 통해 로봇 지능 고도화의 데이터 주도권 강화, 로봇 사업 매출 발생 시점 앞당길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신한투자증권 "현대차, AI·로봇 결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목표가 38만원"(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투자증권이 현대차에 대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결합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32만원에서 38만원으로 상향함. - 현대차는 HMG글로벌을 통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약 27%를 실질적으로 보유함.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뉴 아틀라스'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 시범 투입 예정. - 2030년까지 약 4조2000억원을 투입해 엔비디아 블랙웰 GPU 5만 장 확보, 총 6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임. 2026년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출시 시점에 두 자릿수 PER 리레이팅 기대.
	<p>□ TS트릴리온, 청담글로벌과 미국 시장 진출 협력...AI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트릴리온이 글로벌 유통 강자 청담글로벌과 손잡고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냄. 10억원 규모 유상증자 투자 유치 등 전략적 제휴 체결,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 집중 계획. - 데이터센터 MEP(기계·전기·배관) 전문기업 비비알컴퍼니 지분 100%를 내년 1월 49억원에 취득 예정임. CB발행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며 AI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 본격화. - 비비알컴퍼니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자동절체스위치(STS), 발전기 등 전력 인프라부터 냉동기, 액침냉각 시스템 등 차세대 냉각 솔루션까지 데이터센터 구축 핵심 역량 보유.
	<p>□ SPC그룹, 충북 음성에 AI·로봇 스마트 공장 조성...3000억원 투자(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C그룹이 충청북도·음성군과 '안전 스마트 공장 조성을 위한 투자 MOU' 체결함. 3000억원을 투자해 AI(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IoT(사물인터넷) 센서 등 첨단 기술 적용한 혁신 생산시설 건립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휴먼스마트밸리' 내 18만2866㎡(약 5만5300평) 규모 부지 확보함. 휴먼스마트밸리 전체 산업용지의 약 20%로 입주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SPL 부지보다 2.5배 커서 그룹 내 최대 공장 예정. - 2028년 준공 목표로 혁신 스마트 공장의 바로미터인 '등대공장' 등재 추진함. 기존 공장의 생산량을 신공장으로 분산시키고 10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p>□ 가비아, '인공지능혁신대상' 수상 기념 AI채팅 첫해 50% 할인(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전문기업 가비아가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수상을 기념해 '가비아 AI채팅' 도입 기업 대상 첫해 이용료 50% 지원 프로모션 진행함. - 가비아 AI채팅은 그룹웨어 '하이웍스'와 연동되는 대화형 AI 서비스로, 기업 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AI와 함께 활용 가능함. 전자결재, 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등과 연동되어 맥락에 맞는 정보 검색. -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위원회 등이 주최한 시상식에서 '기업용 AI 솔루션' 부문 대상 수상함. 실질적인 기업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AI 도입 환경 제공 점 높이 평가받음.
	<p>□ 포스코이앤씨, AI로 레미콘 압축강도 사전 예측 기술 상용화(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이앤씨가 SHLab과 'AI 기반 레미콘 품질예측 및 생산자동화 기술' 개발함. 혼합 중 레미콘 상태를 영상·센서 데이터로 분석해 반죽 농도, 수분 함유량, 재료 비중 실시간 확인 및 자동 배합 조정 가능. - 기존 타설 후 28일 소요되던 강도 확인 시점을 AI 분석으로 대폭 단축함. 혼합데이터와 배합 패턴 기반으로 목표 강도 도달 가능성 사전 예측 가능하게 되어 품질 관련 리스크 관리 시간 감소. - 국토교통부 '2025 스마트건설챌린지'에서 최우수 혁신상 수상함. 레미콘 생산-운송-반입·검사-시공·양생까지 전 공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비토즈, 홍콩 사외이사협회 컨퍼런스에서 'Web3·AI 거버넌스' 해법 제시(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토즈(BEATOZ)가 '제9회 홍콩 사외이사협회(HKiNEDA) 연례 컨퍼런스 2025'에 섹션 스폰서 자격으로 참가해 홍콩 금융 시장 내 기술 경쟁력 입증함. - '핀테크' 세션 기조연설에서 이중 상장 이슈와 AI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친화적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전략 발표함. '폴리시 브릿지' 기술과 AI 의사결정 검증하는 '감사 추적' 시스템 소개. - 해시키(HashKey) 그룹, 구글 클라우드, EY(언스트앤영) 등 글로벌 기업 전문가들이 비토즈가 제시한 Web3·AI 기반 리스크 해법에 대한 담론 진행함. 중화권 시장 진출 본격화 계획.
대학교	<p>□ 부산대학교, '2025 한국의 경영대상' AI 혁신 부문 대상 수상(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대학교(최재원 총장)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의 경영대상' 인공지능(AD) 혁신 부문에서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대상' 수상함. - 이번 수상은 부산대학교가 AI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임. 국내 대학 중 AI 혁신 역량에서 선도적 위치 확인.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은 국내 경영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 중 하나로, AI 혁신 부문 신설로 기업과 대학의 AI 전환 노력 평가.
해외	<p>□ 메타, 개방형 AI 전략 수정...폐쇄형 모델 '아보카도' 개발 착수(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가 개방형 AI 전략을 사실상 접고 폐쇄형 모델 개발에 착수함. 코드명 '아보카도'라는 폐쇄형 AI 모델을 개발 중이며 내년 1분기 출시 목표로 테스트 진행. - 오픈AI '챗GPT 5'와 구글 '제미니 3' 등 고성능 모델이 폐쇄형으로 배포되면서 전략 수정 불가피해짐. 올해 4월 출시한 '라마4'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영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딥시크가 라마 설계를 일부 차용해 R1 모델을 출시한 것도 변수로 작용함. 메타의 개방형 철수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
	<p>□ 오픈AI, 최고매출책임자(CRO) 첫 임명...수익화 본격 전환(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2015년 설립 후 처음으로 최고매출책임자(CRO)를 임명하며 본격적인 수익화에 착수함. 업무용 메신저 '슬랙' CEO인 데니스 드레서를 CRO로 영입. - 드레서 CRO는 오픈AI의 수익 전략을 총괄하며 약 100만 개 기업 고객의 AI 도입 지원 역할 담당함. 세일즈포스에서 14년간 전 세계 영업 조직 이끈 경험 보유. - 오픈AI는 기업가치 5000억 달러지만 막대한 투자로 수십억 달러 적자 상태임. 올 10월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 개편 진행.
	<p>□ 벤츠, AI 비서 탑재한 신형 GLB 공개...대화하며 주행(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세데스벤츠가 강렬한 디자인과 탁월한 실용성을 겸비한 '디 올-뉴 메르세데스 벤츠 GLB' 공개함. 넉넉한 실내 공간, 대폭 향상된 주행 거리,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탑재. - 자체 개발 운영체제 'MB.OS'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MBUX 버추얼 어시스턴트' 탑재로 운전자와 교감함. 대시보드를 가득 채운 'MBUX 슈퍼스크린'은 14인치 중앙 및 동반자석 디스플레이 구성. - 'GLB 250+' 모델은 1회 충전 시 유럽(WLTP) 기준 최대 631km 주행 가능함. 800V 고전압 시스템으로 10분 충전만으로 260km 주행 가능. 2026년 봄 전기 트림으로 출시 예정.
	<p>□ 파월 연준 의장 "성장률 상향, 소비 회복력 · AI투자 반영"(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 금리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해 설명함. - 소비 회복력과 AI 투자가 성장률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힘. AI 관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투자가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식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경제가 AI 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글로벌 AI 투자 열기가 실물경제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
	<p>□ BNP파리바 "AI 버블 아니다...닷컴 때와 다른 구조"(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NP파리바가 '2026 글로벌 투자 전망' 간담회에서 미국의 AI 투자가 버블이 아니라고 주장함. 월가 30년 경력의 팸 해거티 리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AI 버블 논란 차단에 나섬. - 닷컴 때와 다른 근거로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의 CapEx를 부채가 아닌 자체 현금 흐름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 제시함. 재무구조가 닷컴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전하다고 평가. - 밸류에이션도 닷컴과 비교하면 온건한 수준임. 19992000년 기술 IPO의 PSR이 4050배였지만 최근 IPO 평균은 11배라고 분석함. 챗GPT는 3년이 채 되지 않아 주간 사용자 8억 명 확보.
	<p>□ 오픈AI "안드로이드서 챗GPT 오류 발생 중"(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AI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챗GPT 오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함. 미 서부시간 기준 10일 오후 2시 40분 즈음 '오픈AI 상태' 페이지에 오류 발생률 증가 문제 확인 안내. - 이로 인해 로그인, 대화, 검색, API, 에이전트, 파일 업로드 등 13개 항목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챗GPT 서비스 이용에 차질 발생. - 오픈AI가 서비스 안정성 문제로 공식 장애 공지를 낸 사례로, AI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 과제를 재확인함.
	<p>□ 미국 검찰총장 42명, 빅테크에 "AI가 망상 조장" 경고 서한 발송(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주를 비롯한 38개 주와 워싱턴DC 등 4개 지역 검찰총장들이 오픈AI, 구글 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13개 기술기업에 AI 챗봇이 아동과 성인에 정신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공개서한 발송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챗봇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인간과 대화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는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크 패턴’”이라고 비판함. 10대 청소년 극단적 선택 사례 등 언급. - 기업들에 독립적인 외부 감사와 AI 답변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요구함. 공화당과 민주당 등 양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초당적으로 연명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불참.
기타	<p><input type="checkbox"/> AI 에이전트 시대... '매출 1000억' 1인기업 나올 것(2025.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파의 김도균 대표가 3년 안에 1인 사업자가 연매출 1000억원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함. AI 에이전트가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핵심 경영 의사결정까지 지원. - AI 에이전트는 반복 업무의 80%를 자동화할 수 있음. 달파는 소비재 기업들의 마케팅 업무 시간을 60% 이상 단축하고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 개선하는 성과 달성. - 신입 직장인들은 AI 도구 활용 능력을 필수 역량으로 개발하고 창의적 사고와 전략적 판단 능력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